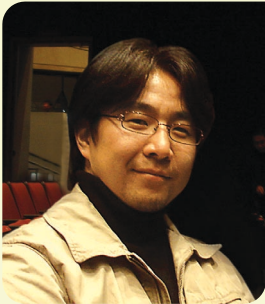


# KOSEN과의 행복한 인연

글 \_ 이윤일 연구원  
Johns Hopkins University · ylee56@jhmi.edu



**처음** 코센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인 열심히 코센에 참여하는 전문가 중의 한 분일 것이라 생각된다. 전주홍 박사님은 같은 실험실은 아니지만 서울의대 생화학교실에 있으면서 평소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던 분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분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웹사이트가 있으니깐 한번 들어가 보라는 말과 함께 코센을 추천해 주셨다. 당시 나는 박사과정 마지막 본심과 종심을 앞두고 있던 때라 별 관심 없이 그냥 이런 사이트가 있구나, BRIC에 비해 활성화가 한참 덜 되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곧 잊어버렸다. 더구나 처음 회원가입을 하는데 서버에 문제가 있었는지 계속 오류가 나는 바람에 코센에 대한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시간이 지나 모교 은사님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다. 은사님은 요즘 학생들이

이공계를 너무 기피한다는 한탄 섞인 말씀을 하시면서 나에게 부탁을 하나 하셨다. 아이들에게 생명과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강연을 좀 해달라는 것이다. 은사님의 부탁이니 거절할 수도 없고, 후배들에게 생명과학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설명해 주고 싶었다.

그렇게 날짜와 시간을 정해 전화를 끊고 난후, 얼마간은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겨우 2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던 당시의 상황에서 강의를 준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잘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무척 긴장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괜히 내 말 한마디로 후배들이 이공계를 더 싫어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그러던 중 전주홍 박사님께 나의 이런 고민을 털어놓게 됐고, 박사님은 다시 코센을 추천해주셨다. 분석 자료를 잘 활용해보라는 것이었다. 어느 세월이 그걸 번역해서 정리하냐고 했더니, 한번 들어가서 보면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하셨다. 나는 곧바로 실험실에 들어와서 www.kosen21.org를 주소 창에 넣고 사이트로 들어가서 분석자료를 찾았다. 그때 분석자료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정보부터 읽어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 읽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 분석자료를 클릭하고 여러

카테고리 중 생명과학을 선택하니 무려 200여 편이나 되는 분석자료가 뜬 것이었다. 그때부터 열심히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마치 장난감을 선물로 받은 어린아이처럼 분석자료 삼매경에 빠져 몇 시간을 보냈다. 필요한 자료는 신청도 해놓고 여기저기 코센의 다른 정보들을 찾아 돌아다녔다. 그때 처음으로 코센의 본 이름이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커뮤니티까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관심 있는 커뮤니티가 있어 'People with Life Science'에 가입도 하고 지식 질의난인 'What is?'에 올라온 여러 글을 읽으며 내가 모르던 정보를 얻기도 하면서 그날 하루를 꼬박 보내게 되었다.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렇게 코센을 통해 강의를 준비했고, 두 시간 동안 나의 노력으로 인해 자라나는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과학에 더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열심히 강연을 했다. 강연이 끝나자 후배들은 별로 잘나지도 않은 선배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었고, 은사님도 고맙다는 포옹과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다. 아마도 그 순간이 과학의 길을 걸어오면서 가장 보람되고 소중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다.

다시 실험실로 돌아오면서 코센이 참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나도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코센에 분석 신청을 했다. 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좀 더 자세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리고 일주일이나 지나 몇 통의 메일을 받았는데, 강연을 했던 모교의 학생들이었다. 내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학교와 실험실을 구경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내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앞날에 조금은 기여한 것 같다는 우쭐함이 들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코센,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기회를 빌어 코센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더불어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좀 더 쉽고 재미있는 사이트를 구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전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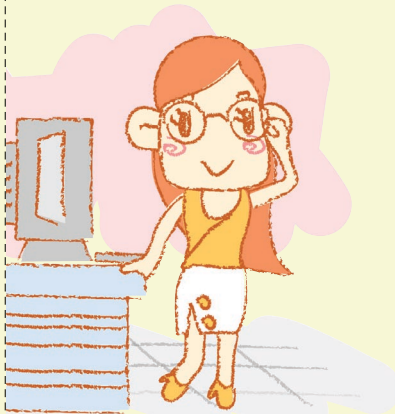
**내가** 코센을 처음 안 것은 2001년 프랑스 몽-뵈리에서 박사학위 중 참가했던 '제25주년 재불과협 빠리 총회'에서였다. 처음엔 그냥 재불과협에서 안면을 익힌 사람들에게 안부와 소식을 묻는 정도였으나 차츰 커뮤니티 '광장'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얼굴도 모르는 한국의 과학기술인들과 친목을 다지는 것이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 돼 갔다. 그렇게 나는 코센 접속을 일과로 삼게 되었다.

하루라도 접속을 안 하면 손가락에 '가시가 돋는다'는 표현을 지인들과 공감할 정도로 코세니아들의 하루하루가 궁급해지던 일명 '코센중독'의 시기. 급하게 필요한 논문 일곱 편의 제목·저자 등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코센의 'INFO ON DEMAND'에 올려놓았을 때, 수시간도 채 못 되어 첨부논문들과 함께 보내준 당시 독일회원 이승미님에 대한 고마움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오가는 논문 속에 싹트는 우리 우정'은 코센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이다. 프랑스에 살면서 다른 유럽지역을 방문해야 할 때에나 방문 전 정보가 필요할 때에도 다른 코세니아들로부터 톡톡히 도움을 받았고, 주객이 전도(?)되어 오로지 그 '싹튼 우정'을 확인하고자 서로 10년 지기라도 되는 양 오간 적도 많다. 그밖에도, 해외회원에게 마일리지 실적에 의거하여 시상하던 분기별 장학금의 경제적 혜택을 비롯하여, 코센에서 받은 것들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열혈 코세니아라면 한 가지씩 내세울 법한 코센의 혜택을 나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은 것 같다 여기서 다른 코세니아들과는 차별되는 소중한 인연 하나를 더 소개하고자 한다.

내가 일본 동북대학의 김기현님(Kosen ID: arche)을 처음 알게 된 것은 'INFO ON DEMAND'를 통해서다. 다공성 기관 위에 자성 재료막을 습식법으로 제작 응용하는 것을 주제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던 중이던 2002년, 급히 필요한 논문들을 코센에 부탁했는데, 김기현님께서 논문을 찾아주시며 친절한 이메일까지 덧붙이셨다. '찾으시는 논문들을 보니 연구 분야가

# KOSEN 중독의 뿌듯함



글 \_ 객지혜 선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coeurbleu@hanmail.net



비슷한 가 봅니다. 모쪼록 도움 되길 바랍니다.' 당시의 나는, 같은 기관 위에 스퍼터링 법으로 자성막을 제조하여 비교·연구하고 싶었으나 장비나 재료, 상황 등이 여의치 않아 안타까운 입장이었는데, 마침 논문을 계기로 간단한 이메일을 주고받던 중, 김기현님께서 강자성체 박막 재료를 연구하고 계시다는걸 알게 되었다. 여러 차례 이메일이 오갔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관 위에 샘플을 올려주실 수 있는지 이메일로 여쭙어보니 흔쾌히 승낙해주셨다. '심봤다~!'를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부터 국제전화와 MSN을 통한 나의 김기현님을 향한 스토킹(?)이 시작됐다. 결국 온라인으로 논문만 도움 받는데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샘플소포가 날아다니게 되었다. 일본에서 날아온 상자를 열었을 때 반짝거리던 어여쁜 막으로 원하던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각종(?) 통신수단을 통한 실시간 토론도 마다하지 않아주신 덕분에 나는 졸업 논문 작성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조심하세요. 졸업하면 아예 일본으로 가서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국제전화 중 내가 농담처럼 하던 말이 현실이 되어 박사수료 후 연구원으로 일본에 가게 되었다.

코센을 통해 김기현님을 안 것은 2년 남짓이지만, 직접 뵈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김기현님은 마침 소속부서의 한인 송년회가 있으니 술자리와 함께 코센도 알리자고 제안을 해와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게 됐다. 본적도 없으면서 술자리를 함께하고 싶을만한 친구가 된다는 것, 그것은 코센을 아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이후부터는 국제전화도, 소포도 필요 없이 자주 자주 샘플을 마구 날리면서 지속적으로 분석 및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물론, 우문현답을 기다리는 나의 무식한 질문들은 지금도 김기현님을 든든한 백으로 삼고 있다.

샘플 주고 술까지 사주셔야 하는 김기현님께는 코센이 웬수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불안감이 들 때면 코센의 쪽지기능을 이용해 무마도 시도해 본다. '코센에서 분석비 타면, 제가 한번 쓸까요~!^^' 